

##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국민대학교 지정, 총 2개 대학으로 운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 위기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에 산림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대학교’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은 산림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현재, 고려대학교 1개교가 지정되어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1개교당 연간 사업비 지원 규모를 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2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중 공모를 시작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원의 사업계획, 산학연 협력계획 등을 평가하여 국민대학교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최종 선정하고 5년간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대학교는 기후변화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과 관련된 교과목을 10개 이상 개설하고 산림탄소흡수원 국제 공동연구 수행,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연구 등을 실시하여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11%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산림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사업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덕하 (042-481-4130)
		담당자	사무관	이상협 (042-481-4037)

### 참고 1

###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적) 산림부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 및 연구기반을 확대
- \* 법적근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 국내·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분야별 연구분야를 세분화, 전문화 및 전문인력양성, 연구사업의 확대가 필요

#### □ 사업현황

- '23년 예산 : 4.5억원
- 지원내용 : 특성화대학원 1개교당 3억원 지원(신규 1개교 1.5억원 지원)
- \* 제1기('16~'20, 서울대), 제2기('21~'25, 고려대)

#### □ 기대효과

- 파리협정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산림분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연구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후변화 교육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기대
- 산·학·연 권역별 네트워크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산업계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및 정보 제공 등 기후변화대응 활동 지원

#### □ 관련 사진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야외실습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강의